

청년 안정적 지역 정착 · 주거 안정 지원 “어린이날 전주동물원 소풍 가자”

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예비입주자 50명 최종 선정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들이 결정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주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에 입주할 예비 입주자 5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총 1,322명의 청년이 지원해 52.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 50명은 △우선 공급 대상자 1명 △기초생활수급자 42명 △한부모 가구 6명 △차상위 계층 1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거주자 35명과 타지역 거주자 15명으로 나타나, 전주형 청년주거모델이 지역 청년뿐 아니라 외부 청년들까지도 끌어들이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날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했으며, 이어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 주택을 자유롭게 방문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들이 결정됐다. 사진은 우범기 전주시장 ‘청춘★별채’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방 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후 12일부터 순차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공급 물량은 총 23호로, 이중 공동거주형(1호)의 경우 3명이 거주할 수 있어 총 25명까지 입주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 중 순번 25번까지는 우선 입주 절차가 진행되며, 잔여 순번자의 경우 △계약 포기 △중도해지 △기존 입주자 퇴거 △리모델링 등을 통한 추가 공급 물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와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23호 신규 공급에 이어, 향후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공실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비 입주자에게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변경 계약

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업 대상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올해 처음 도입된 ‘청춘★별채’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시장은 “청춘★별채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활력 제고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는 5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해 더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5월 5일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무료 입장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동물원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또한 어린이날 당일 전주동물원과 드림랜드가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문을 열고, 부설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일 동물원과 드림랜드 모두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입장객의 편의를 위해 동물원 내 부설주차장(828면)을 어린이날 하루 동안 전면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권희성 기자



이와 함께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날 당일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50여 명의 운영 인력을 투입해 관람객 안전관리와 시설 환경정비, 비상·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대 전주동물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동반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관람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6756필지(완산구 6만8005필지, 덕진구 7만186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완산구 1.43%, 덕진구 1.22%) 상승했으며,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20만6000원(완산구 21만6000원, 덕진구 1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옛 현대약국 토지로 1㎡당 691만3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1㎡당 849원이 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권희성 기자

방한나뷰티룸, 완산구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방한나뷰티룸(원장 방한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조손가정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김용삼)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방한나뷰티룸은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 관리 전문성을 갖춘 미용뷰티숍으로, 24년 이상 경력의 방한나 원장이 전주점(중화산동)과 군산점(나운동)을 운영하고 있다. 방한나 원장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분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요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한나 원장은 2023년에도 전주시 복지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해 조손가정 100가구를 지원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하가지역 청소년 환대 공간 탄생

하하이음교육공동체, 로스터리 팔복커피 2호점서 ‘하하 1호점 맡겨놓은 카페’ 현판식 개최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하하이음교육공동체(대표 임화성)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로스터리 팔복커피 2호점에서 청소년 환대 공간인 ‘하하 1호점 맡겨놓은 카페’(이하 하하 1호점)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하하 1호점’은 인근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 지자체가 함께 아이들의 행보를 고민하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하가초등학교 교원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역 주민, 덕진동주민센터, 덕진동 지역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하가지역의 아이들이 행복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역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 지역사회 기존 공간을 활용해 아이들이 환대 받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참여 주체들은 하하이음교육공동체를 결성하고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행보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이날 현판식 행사는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추진됐다. 하하 1호점은 이날 현판식에 이어 오는 5월부터 하가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대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하 1호점에서 운영하는 ‘맡겨놓은 카페’는 이탈리아의 ‘카페 소스페소(Caffe sospeso)’ 개념

을 직역한 것이다. 카페 소스페소는 이탈리아어로 ‘미정’,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 커피 한 잔 값을 미리 지불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커피 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타 국가로 확산된 나눔 운동이다. 하하 1호점의 ‘맡겨놓은 카페’역시 지역 어른들이 카페에 방문해 음료값을 미리 결제하고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아이들이 카페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고 감사 메시지를 쓰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따뜻한 연결과 소통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희성 기자



우아1동 ‘부앗집’, 홀로 어르신 위한 건강 기원 한방백숙 나눔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주민센터(동장 송정하)는 지난달 29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식당 ‘부앗집’에서 홀로 어르신을 위한 건강 기원 한방백숙 나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 기원 한방백숙 나눔은 첫마중 곁에 위치한 토종닭요리 전문점 ‘부앗집(대표 이영두)’에서 2019년부터 7년째 매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홀로 어르신 120세대(240인분)에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영두 ‘부앗집’ 대표는 “내 부모님이 드신다는 생각으로 한약재도 듬뿍 넣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맛있게 드셔주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나눔의 기쁨이 커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